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47>

知 所 先 務

지 소 선 무

먼저 힘써 해야 할 것을 알다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학고전연구소 소장)

새 정권이 탄생한 지 벌써 한 달을 넘기고 있다. 새로이 정권이 탄생하였으니 할 일이 좀 많겠는가? 국무총리와 장관 같은 높은 관직에서부터 그 아래로 많은 자리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추어 사람을 뽑아 앉히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어떤 사람을 뽑아 앉히는가가 중요한데, 그 인사를 보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알게 된다. 봄에 땅에서 나는 싹을 보고 사람들은 그 싹이 장차 거목이 될지 버려질 잡풀이 될지를 가늠하듯 새 정권이 들어서서 첫 인사는 바로 봄의 새 싹처럼 아직 다 자라지는 않았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하니 인사(人事)는 행정조직이기는 하지만 고도의 정치행위이다. 이 고도의 정치행위인 인사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 새 정부를 가능한 한 도와 주려고 할 수도 있고 절망을 주어 이 정부가 빨리 무너졌으면 하면서 사사건건 반대할 수도 있으니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역사에서 인사(人事) 하나를 통하여 민심을 달래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을 찾아보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유수(劉秀)의 경우가 생각난다. 전한(前漢)을 무너트리고 신(新)을 세운 왕망(王莽)이 죽고 유수가 한(漢)의 부흥을 내세우고 황제에 올랐다. 그러나 당시에 이미 황제를 칭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 명이었다. 그 첫 번째가 비록 도적집단에 의하여 세워진 폭두각시였지만 경시제(更始帝)로 불리는 유현(劉玄)이었다. 다음으로는 적미(赤眉)세력에 의하여 황제로 세워진 유분자(劉盆子)도 있었다. 이들도 겉으로는 한(漢)왕조를 부흥시킨다는 뜻으로 유씨(劉氏)를 황제로 내 세웠으니, 백성들이야 그들이 폭두각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외에도 독자적인 군사세력을 가지고 황제를 자칭하는 세력이 있었으니 유수가 황제에 올랐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에게 귀부할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수가 비록 황제에 올랐고 설사 군사적으로 다른 세력보다 우위를 점한다고 하여도 힘으로 이들 모두를 제압하고 전국을 통일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러할 때에 무엇으로 다른 사람의 우위를 점할 정치행위를 할 것인가? 그것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수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자치통감 40권에 실려 있는데 그는 엉뚱하게도 이미 70살이 되어 은퇴한 탁무(卓茂)를 모셔오면서 탁무의 명에가 천하의 으뜸이라고 하며 태부(太傅)로 삼고 포덕후(褒德侯)로 책봉하였다. 사실 당시 유수는 많은 적대세력과 전투를 해야 하는 데, 어찌 보면 엉뚱한 조치를 한 것 같아 보인다. 아무리 보

아도 탁무는 전투에 참여하여 한 명의 적이라도 제압할 능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조치를 본 역사가 사마광은 ‘왕조가 장구하게 항유하기에 적당하였고 먼저 힘써야 할 것을 알아서 근본적인 것을 얻었다.’고 칭찬하였다. 탁무의 무순 능력을 보고 유수는 탁무를 발탁했으며 사마광은 무엇 때문에 칭찬하였을까?

사실 탁무(卓茂)는 젊었을 때 혼란하였던 애제(哀帝)와 평제(平帝)시절을 보냈다. 이때 그는 도량이 넓고 인자하며 공손하고 사람들을 아끼며 성정(性情)이 담백하고 걸림 없이 도(道)를 즐긴 사람이었다.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고 다른 사람과 다루는 일이 없어서 고향에서는 모두 아끼고 흠모하였는데 밀현(密縣)의 현령으로 부임하였다. 탁무는 밀현에 와서도 여전히 백성들을 자식처럼 돌보고 선한 사람을 드러내 주고 교육하면서 나쁜 말을 하는 일이 없자 백성들은 그를 가까이 하고 속이지를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백성 한 명이 그에게 와서 자기의 정장(亭長)이 뇌물을 받았다고 고발하였다. 공직자가 뇌물을 받았다면 당연히 법으로 처벌해야 맞는 것이다. 현령인 탁무는 자기 관내에서 공직자가 뇌물 받는 일을 없게 해야 했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법으로 그 정장을 처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탁무는 일단 그 뇌물을 주고받은 상황을 물어보았다. 그 백성은 정장이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정장이 무서워서 뇌물을 주었다고 했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뇌물을 갖다 주었지만 공직자가 그 물건을 받았으니 뇌물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탁무는 이 백성이 뇌물죄라는 범조문으로 정장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을 간파하였다.

탁무는 ‘만약에 정장이 관원이라는 위엄을 가지고 재물을 요구했다면 뇌물이었겠지만, 정장의 입장에서는 백성이 세시(歲時)의 예의로 선물을 보내 온 것을 알았다면 뇌물일 수 없다. 범으로 뇌물은 분명히 금지(禁止)하였지만 이는 커다란 원칙이지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범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백성을 돌려보냈다.

그는 현을 다스리면서 법으로 처벌하는데 주력해서는 안 되며 뇌물과 선물을 구별한 것이다. 그리고 뇌물은 범으로 금지하고 처벌도 해야 하지만 선물은 예의습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좋은 풍습으로 장려할 일이라고 판단하고 조치한 것이다.

조금만 잘 못하여도 법을 가지고 처벌하려 하였던 당시에 탁무의 태도를 보고 사람들은 질서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비웃었다. 또 상급기관에서도 밀현이 잘 다스려지지 않을까 염려하여 현령 한사람을 다시 내려 보내기

까지 했다. 그러나 탁무는 개의하지 않고 여전히 덕치(德治)에 힘썼다. 예치(禮治)인 셈이었다.

이렇게 하였던 결과, 그가 현령의 임기를 마치고 경부승(京部丞)으로 승진하여 밀현을 떠나게 되었을 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눈물을 흘리며서 쫓아와 환송하였다. 이는 다른 곳을 몰라도 밀현만은 잘 다스려졌다는 방증이다. 그 후 왕망이 섭정을 하자 탁무는 관직에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내고 있었는데 유수가 황제에 오른 뒤에 바로 이미 잊힌 탁무를 수소문하여 모셔 온 것이다.

전투로 밤낮을 지새워야 하는 시기에 유수가 탁무를 모셔 온 것은 바로 ‘나의 정치는 각박하게 법으로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탁무같이 사람과 사람이 예의를 지키고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을 세상에 공표한 것이다. 요즈음 말로 한다면 인문학(人文學)적 사고를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역사가 사마광은 유수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평론하였다. ‘광무제가 즉위 초에 군웅이 경쟁하고, 사해는 숲의 불이 끓는 것처럼 시끄러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강한 군사를 꺾고 적을 함락시키는 사람과 권모와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을 중시하였지만, 유수는 충성스럽고 후덕한 사람과 훌륭한 관리를 풀이나 쏘대 발 같은 민간 속에서 집어내어 여러 사람의 뒤통이에 채워 넣었습니다.’

탁무를 발탁한 이 인사조치 하나로 사람들은 유수의 통치방향을 알게 되고 그에게로 민심이 쏠리었으니 인사 하나가 100만 대군의 전투력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왔다. 결국 그가 통일제국을 이룰 수 있었고 향후 200년을 이어 갈 왕조의 토대를 마련했던 것이다.

새 정부의 인사(人事)를 보면 그 방향은 법치(法治)임이 틀림없다. 사실 전 정부에서도 모든 것을 법으로 처리하려고 하여 이른바 민변출신을 발탁하였다면 지금에는 검찰 출신을 발탁하고 있으니, 따지고 보면 모두 법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말이다. 정권은 바뀌었는데 정치철학은 마찬가지이다.

새 정부는 전 정권과 다르게 나가겠다고 하지만 발상(發想)의 기초가 같다. 전 정권을 비판하고 들어섰는데 같은 정치철학이라면 무엇이 달라졌는가? 전 정권과 다르게 가려면 오히려 역발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유수가 탁무를 발탁한 것처럼 정말로 이 시대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하게 모자라는 인문학적 정책방향으로 선회(旋回)하는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전 정권을 내로남불이라고 공격해 보았자 이대로라면 결국 전과 다른 바 없는 범부라지들의 세상이 이어질까 걱정이다.

권용재 고양시의원 당선인 접경사

권용재(추밀공과, 38世) 고양시의원은 6·1 지방선거 당선이 확정되던 2일 둘째 야기까지 출산하며 접경사를 맞았다.

권용재 당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천거구(식산·풍산·고봉)에 출마하여 33.44%인 1만3216표를 획득하며 이날 새벽 1위로 당선됐다.

같은 날 오전 9시경 권 당선인의 부인은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여 접경사를 맞이하게 됐다.

권 당선인은 1982년생으로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에서 기구개발자로 근무한 바 있으며, 2012년 19대 국회에서 박인숙 국회의원의 9급 비서로 시작해서 3년 만에 5급 비서관으로 승진하며 입법 활동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현대자동차 경제분석실에서 주임연구원으로 재직했고,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일산동구 선거연락소장으로 활동했다.

권용재 고양시의원의 부친은 권중희 상주총천회장이다.

부친 권중희 상주총천회장은 아들 권용재 후보에게 “굳이 고양시에 출마하는 이유”를 묻자, 권용재 후보는 “고양특례시는 인구 109만의 도시로서, 경기북부 최대의 도시다. 기초의회 중에서도 최상위 위상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특히 자족도시로의 변모를 꿈꾸고 있는 고양시에서는 정책, 산업, 창업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제 자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제 겨우 39살로 그동안 직업 6개를 거쳐 왔는데 국회에서 정책을 만들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는 권용재 의원의 활약에 귀추가 주목된다.



권중석 경산시의원 당선인, 경산시장학회에 100만원 기탁



지난 10일 경산시장학회(이사장 최영조)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 경산시의원(라선거구) 권중석(사진 오른쪽) 당선인이 지방선거후보 사무소 개소 및 당선으로 받은 축하 화분을 판매해 그 수익금 전액 1백만원을 기탁했다.

권중석 당선인(별장공과 38세)은 경북 영양군 일월에서 고 재용의 4남 1여 중 막내로 슬하에 아들 형제를 두고 있으며 경산시의원 초선으로 당선인 중 최다득표를 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화분에는 저에 대한 성원과 격려의 뜻이 담긴 것으로 보내주신 정성을 다시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이 그분들

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봉사할 생각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이 마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권중석 당선인은 현재 현진아그로(경산시 압량면 소재·제조업) 대표로서 지난 10년 동안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는 등 오랜 시간 꾸준히 사회봉사에 관심을 기울여오고 있어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경산=권성욱 한청타임즈 기자

서울산악회 정기산행 안내 (제316차)

서울산악회 정기산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리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2022년 7월 17일(일) 10시
- ♣ 장 소: 지하철 4호선 과천종합청사역 1번 출구
- ♣ 산행지: 관악산 문원폭포
- ♣ 준비물: 도시락, 간식 및 개인 필요장비
- 회 장 권영복: 010-2456-6865
- 등반대장 권오윤: 010-9027-6179
- 총 무 권순휘: 010-3797-1874

2022년 7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영복

서울 마포종친회 월례회 안내

회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 7월 월례회는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일시: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오후 7시
- ♣ 장소: 우가촌 (02-702-5047)
- * 우가촌이 이전했으니 착오없이시기 바랍니다.
이전 장소 찾아오는 길 :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6번 출구
만리동 고개 방향 50m
- ◆연락처 :
회장 권승구 02-718-8437, 010-6271-8437
총무 권경택 010-3796-4047

2022년 7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승구

<2022年 6月 宗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05. 28.~06. 27.
총 납부자 13명

총 390,000원			
단위: 원			
(이름순)			
권기백(경주)	30,000	권영복(서울용산)	30,000
권기현(대구)	30,000	권영일(제천)	30,000
권무탁(영주)	30,000	권영환(음성)	30,000
권석구(대구)	30,000	권오진(서울강북)	30,000
권석창(서울중구)	30,000	권용호(포항)	30,000
권정구(대구)	30,000		
권혁근(경주 국당길)	30,000		
권형순(서울금천)	30,000		

임원회비 납부 안내

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임원회비는 꼭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원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회비는 안동권문의 발전과 100만 족친의 화합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입니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임원 : 상임위원, 부회장, 이사, 총무위원

◆대중회 사무처

- ▶ 전화번호 : 02-2695-2483~4
- ▶ FAX: 02-2695-2485

◆임원회비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33237-04-006941(예금주: 안동권씨 대중회)
- ▶농협: 301-0235-6546-41(예금주: 안동권씨 대중회)

안동권씨 대중회